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4호【루계 제24657호】주체103(2014)년 9월 1일(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

지난 수십년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난 수십년간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사회주의교육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귀중한 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천재적인 예지가 빛발치는 수많은 로작들은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 휘황한 등대로,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한 일제의 죄행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오가자의 삼성학교와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에서 무료교육의 첫 종소리를 높이 울려주시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22(1933)년 3월 18일 가야허유격구 사수평에서 진행된 왕청 제5구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에서 하신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에서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활짝 꽃피우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몇달후 왕청현 소북구에서 아동단책임자들과 하신 담화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에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준비하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아동단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5일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고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숭고한 후대관을 안으시고 《**창덕학교 교원들과 한 담화**》, 《**새 조선의 믿음직한 기술인재가 되라**》,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 《**교원대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학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제와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족기술간부들을 키울데 대한 문제,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육성을 위해 종합대학을 시급히 창설할데 대한 문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원쑤들이 침략의 불을 질렀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39(1950)년 7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성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교육사업을 전시조건에 맞게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학교들에서 전시조건에 맞게 교수를 보다 전투적으로 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문제, 학생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에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교육부분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는 인민군대에 복무중이거나 정치공작대로 남반부에 나갔던 대학교원들을 모두 대학에 소환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하시고 대학들에서 전시환경에 맞게 과정안과 교수요강, 강의안을 잘 작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등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주체41(1952)년 4월,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안으시고 력사의 땅 백송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조국해방전쟁의 전망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 그들이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연구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가 승리한 조국땅우에 인민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인 6월 17일에는 김책공업대학(당시)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연설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에서 전후복구건설과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민족기술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당의 기술인재육성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0월 18일에 하신 담화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대학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실험실습토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는 등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대에도 주체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로고와 헌신을 바치시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고등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교육교양의 몇가지 문제**》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기술자를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하여 도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문제를 푸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 고등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자, 전문가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그들을 질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교육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70년대는 우리 나라 교육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년대였다.

귀중한 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교육학의 기본원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형의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기관의 임무 등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준 이 로작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이며 주체의 교육사상과 리론,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대백과전서적인 교육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마련해주신 강령적 지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교육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전인민적교육체계가 확립되여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불멸의 로고와 사색을 바치시며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적교육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대학교육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그 이후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전적로작들인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영화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를 비롯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교육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 학생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주체가 확고히 선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혁명을 일으켜 주체교육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주체73(1984)년 7월 22일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발전에서 교육이 노는 역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족인재양성을 위한 과업,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실현방도, 교원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자주시대 인간개조육성의 옳바른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대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주체교육발전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선군시대의 혁명인재양성과 우리 나라 대학교육발전에서는 획기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교육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들에서 제시된 교육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또 한분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솟구쳐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 《**혁명가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여야 한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고계신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교육중시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가슴벅찬 현실은 이 땅우에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일떠세우시려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교육을 중시하고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체교육은 앞으로도 비약적발전과 더불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떠밀것이며 만년대계의 사상리론적재부들로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교육사상과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안고 계속 힘차게 전진

계획보다 40여만t의 석탄을 더 생산

석탄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계획보다 40여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석탄생산이 105.3%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각지 탄광들에서 뚜렷한 생산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남흥과 흥남에서 시비년도 화학비료생산계획수행의 승전고가 높이 울리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성에서는 각지 탄광련합기업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기업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증산돌격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조건보장을 앞세우고 특히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의 석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주도성있게 조직집행하고있다. 또한 각지 중소탄광들에서 생산을 늘여 자기 단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지구와 덕천지구의 탄광들에서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탄광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짜고들면서 갱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생산을 전망성있게 내밀고있다.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채탄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생산량을 계속 늘임으로써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화력탄보장계획을 일별, 월별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굴지의 석탄생산기지들인 제남과 남양탄광에서 석탄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고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 덕천탄광, 월봉탄광, 형봉탄광에서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도 석탄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줌으로써 증산목표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 섰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봉천탄광에서 흐뭇한 생산실적이 련일 기록되고있다. 자강도공급탄광에서는 기업관리의 정보화를 자체의 실정에 맞는 완성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조양탄광, 개천탄광, 신립탄광, 무진대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조선속도창조투쟁의 기치높이 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북창지구와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련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체의 실정에 맞는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증산목표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과 강서탄광, 삼신탄광, 전천탄광, 사리원탄광에서 1t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져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특히 삼신탄광 송산갱의 탄부들이 지난 8월 6일까지 년간 석탄생산계획과 지표별굴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한사람같이 조직동원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고있다.

이밖에도 함남지구, 천내지구, 명천지구, 온성지구, 경원지구 탄광들과 금야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김철과 흥남 그리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정상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기계공장들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부속품들과 소공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개천탄광기계공장, 득장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 송남탄광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탄광설비부속품과 소공구생산은 물론이고 지난 시기 전문공장에서만 생산할수 있다던 주요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가을걷이준비로 들끓는다

각지 농촌들에서

가을걷이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요즘 각지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농사를 결속하는 마지막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서 봄내, 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술한 낟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데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고있다.

뜨락또르, 련결차, 벼종합탈곡기, 강냉이탈곡기수리정비에서 날마다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황해남도가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귀중한 낟알을 한알도, 한이삭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8월말현재 계획했던 4 700여대의 뜨락또르와 4 000여대의 련결차, 3 300여대의 벼종합탈곡기와 3 200여대의 강냉이탈곡기에 대한 수리정비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에서도 가을걷이준비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시, 군들에 파견하여 탈곡기와 륜전기재들을 수리정비하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잘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해당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탈곡기수리정비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결과 도에서는 1 000여대의 뜨락또르와 1 600여대의 련결차, 2 200여대의 강냉이탈곡기에 대한 수리정비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였다.

평양시, 강원도, 량강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짧은 기간에 가을걷이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예견성있게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각종 농기계들의 수리정비사업은 물론 소농기구들도 품을 들여 준비하고있다. 이와 함께 달구지에 대한 수리정비와 포전도로보수를 다그치고있으며 부림소관리도 잘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각 도, 시, 군들에서는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이동식벼탈곡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리용함으로써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안남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적극 내밀고있다. 평성시, 안주시, 대동군, 개천시, 성천군, 북창군, 순천시들에서는 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이동식벼탈곡기를 계획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 배천군을 비롯한 다른 도, 시, 군들에서도 이동식벼탈곡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애국으로 불타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가을걷이준비사업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중요화물수송성과 확대

개천철도국에서

개천철도국에서 3.4분기에 들어와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화물수송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추켜세우고 활성화하자면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천철도국의 관내에는 화력발전소와 중요탄전,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이 적지 않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 단위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국안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당, 행정일군들은 각 기관차대와 중요화물역, 기술역들에 내려가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자강도의 동발나무생산지들과 서부지구의 중요탄전들,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위치한 화물역들의 상하차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게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짐임자들과의 련계밑에 화물싣기작업시간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단축하였다. 그리고 렬차검사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화차정비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들어온 화차들을 지체없이 목적지에로 떠나보내였다.

철도국에서 조직한 기동적인 화차이동수리와 운행중 렬차검사는 중요물동수송을 늘이는데 한몫하였다.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사령지휘를 예견성있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기관사들이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기관차점검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동발나무, 탄광설비와 자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모래를 실은 화차들을 더 많이 달고 대고조전투장들을 향하여 전속으로 달리도록 하였다.

전투기간 신안주, 개천객화차대의 수송전사들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들끓는 생산단위들에 나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협동속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화차수리전투를 벌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화차수리에서 커다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더 많은 화차들이 중요물동을 실어나르도록 하였다. 각 기관차대들에서는 수리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여러 기술혁신안을 기관차수리에 받아들여 실동기대수를 늘이고 모든 기관사들이 맡은 구간들에 대한 철길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운행조법을 확립하도록 하여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날랐다.

전력공업부문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긴장한 철도수송문제를 푸는것이 곧 자기 단위의 생산을 추켜세우는 일이라는 립장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각지 탄부들은 철길인입선관리와 상하차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본사기자 전성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골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동강골재사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선군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펼쳐주며 대를 이어 울리는 룡남산의 맹세

위대한 력사의 선언—《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조선을 빛내이실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그날로부터 어느덧 54돐기의 년륜이 새겨지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열렬한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일편단심의 맹세를 담아 인민이 터치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주체49(1960)년 9월 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승리와 번영을 노래하는 조국산천을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뒤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여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실 원대한 뜻을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으시였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신 열화같은 충정의 맹세였고 조국과 인민앞에 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룡남산의 맹세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신 장장 수십성상의 혁명활동, 성스러운 그 력사는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누리에 떨치신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무수한 나날의 낮과 밤을 지새우시며 불같은 열정과 끝없는 사색, 탐구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분석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히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업적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늘 격찬하군하시였다.

언제인가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나의 혁명사상을 이미 오래전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으며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기본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나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것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론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계로 정립한것도 만점이며 매 구성체계를 론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라고 칭송하시였다.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력사와 인민의 열렬한 칭송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조선을 빛내이실 맹세를 깊이 간직하시고 정력적인 령도와 혁명실천으로 조국의 존엄을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이의 불같은 헌신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광명성절의 화폭들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주체58(1969)년 2월 16일, 그날도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께 탄생일만이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래 자신께서는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고 하시며 해가 지도록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시였다. 주체64(1975)년의 2월의 명절에도 밤늦도록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횃불행진을 보아주시고 그길로 한 단위를 찾으시여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의 탄생일에는 온종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주체73(1984)년 2월 16일에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력사적로작을 발표하시여 고귀한 지침을 안겨주시고 90년대의 마지막해 2월의 명절날은 군인들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하는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고, 바로 이런 날이 자신의 명절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실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히시고 열렬한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치시였다.

주체98(2009)년의 탄생일에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밤에는 문필가들을 부르시여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였다. 밤이 퍽 깊어서야 사랑하는 전사들을 바래우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내가 또 현지지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 동무들이 나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는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걷는것이 나에게는 락으로 된다. …

그처럼 열렬한 뜻을 안으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광명성절들만이 아닌 명절날들과 일요일들 아니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으니 그이의 헌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하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룡남산의 맹세와 함께 력력한 빛을 뿌린다.

장장 수십성상 끝없이 이어진 수천수만리의 전선길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룡남산의 맹세를 실현할 의지로 심신을 불태우시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헤치고헤치신 성스러운 길이다.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 폭잠과 꿰기밥, 야전솜옷 …

그리도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단벌솜옷만을 입으시고 모진 추위를 한몸으로 다 막아 인민들에게 따뜻한 봄날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인민은 영원히 못잊는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167만 6 10여리의 머나먼 길을 헤치시며 1만 4 29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

룡남산의 맹세를 지키시여 자신의 탄생일에도, 온 나라의 인민들이 즐기는 명절날들과 일요일들에도 아니 한평생 헤치신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도 인간인것만큼 힘이 들고 잠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편안히 휴식할수도 없고 마음놓고 잠을 잘수도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사랑하는 내 조국, 우리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며 떨칠 굳은 맹세를 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는데 나는 아직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위대한 생의 자욱자욱마다에 그토록 고결한 뜻을 담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병사들을 찾아, 인민을 찾아 강행군을 단행하시였다.

룡남산마루에서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맹세와 혁명실천은 이 땅우에 참으로 눈부신 현실을 펼치였다.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더욱더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이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만수대거리, 대계도간석지, 새 세기 산업혁명…

룡남산의 맹세를 간직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으로 펼치신 6.15통일시대는 또 얼마나 벅찬것인가.

그 모든 성과들과 전변들은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맹세, 룡남산의 맹세의 빛나는 실현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지켜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시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이시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은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린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준비해간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령님께 보고드려 로선과 정책작성에 큰 도움을 드리시였다.

주체51(1962)년 7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산간지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본보기단위로 꾸리신 창성군의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기 위하여 현지에서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준비하고계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의 참판대상으로 예견되여있는 삭주지구의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며 지방의 경제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료해자료들을 종합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해설론증한 론문을 집필하시였다.

론문에서 분석된 자료들은 창성련석회의를 준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창성련석회의때 시범단위를 꾸리고 문건준비를 하느라고 바쁜 일이 많았지만 회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잘될수 있었던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의도와 생각하는바를 속속들이 알고 미리 앞서가며 여러모로 도와주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수행하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함경남도와 량강도, 황해북도와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저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신 이야기를 오늘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력사에는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 국가의 정책작성이나 실현에 이바지한 명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일찌기 학생시절부터 당과 국가의 정책작성에 특출하게 기여한 위인은 없었다.

대학시절에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보좌해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주체52(1963)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최전연에 위치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런데 구분대지휘관들은 처음 이 구호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당백》의 구호에는 인민군대를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만들어 그 어떤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할수 있게 하시려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일당백에 대한 내용을 방어에만 국한시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인민군대는 방어뿐아니라 공격에서도 일당백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해 7월 한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여 전술적수세로써 적들을 요정낼수 있는 지략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1월에는 한 반항공구분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이 현대적기술기재에 정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나날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해나가신 뜻깊은 나날이였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몸소 밝혀주신 수령의 지위와 역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의 하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였다.

주체49(1960)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학부 교원들과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먼저 선행리론을 분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는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확언하시였다.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입니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참으로 위대한 정식화였다. 이 정식화에 의하여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가 가장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로동계급의 혁명학설에서 가장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수령중심론을 받아안는 교원들의 가슴은 끝없이 부풀어올랐다.

어은동에 빛발친 선군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계시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평범한 병사생활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대원은 이제는 군사야영을 그만하시고 들어가셔서 더 중요한 사업을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볍게 나무라시며 지금 자신에게는 군사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 앞으로 군사사업을 맡으시려는가고 또다시 말씀드리였다.

그의 질문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문과 무를 다 중시한다고,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치가는 왜 군사를 중시하고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를 모르는 정치가는 진짜정치가가 아니라고, 현대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지략과 담력, 뛰여난 령군술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한다고, 자신께서는 무엇보다도 총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총대를 제일시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령장의 선군의지가 빛발치는 잊을수 없는 력사적 순간이였다.

본사기자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조선혁명에 필요한 산지식을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대학생들에게 이 심오한 뜻을 깊이 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나라의것을 잘 알아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가실 자신의 맹세를 피력하시며 대학생들에게 우리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력을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해나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자신의 이런 실천적모범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학습을 기본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시였다.

지금도 모든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의것을 잘 아는 조선의 혁명가로 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선히 안겨오는듯싶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어버이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잘 알고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와 풍습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특히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체득하고 당적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조선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대학생들의 학습관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천명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과정은 창조적과정이라고 하시며 청강, 다독, 사색, 토론과 론쟁, 현실체험, 실험, 이것이 학습의 기본공간이며 방법이라고, 이렇게 학습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생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와 다심하신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혁명인재들이 자라났던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더불어 조선의 참된 혁명가들을 키워주신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본사기자 림 정 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꾸알라 룸뿌르

말레이시아 국왕

알 술딴 알무따씨무 빌라히 무히부딘
뚜안꾸 알하지 아브둘 할림 무아드잠 샤흐
이브니 알 마르훔 술딴 바들리샤흐페하

나는 말레이시아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8월 31일 평 양

박 봉 주 총 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기술개건정형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기술개건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제철소의 기술개건전투현장들을 돌아보면서 4호회전로 동체조립과 새 선별장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전력소비를 혁신줄이면서도 제강시간을 단축하고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서 제철소현대화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대상설비들과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총리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전국의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산림조성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며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어

순천구두공장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초급당위원회는 연혁소개실참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교양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누구나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맡은 일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절세위인들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구두재단, 구두갑피, 구두제화직장을 본보기로 꾸린데 기초하여 아동구두직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여 령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정 숙

당의 부름따라 값높은 위훈을 새겨온 결사관철의 200여일

황해남도물길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제기일에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크나큰 격정과 환희, 승리의 신심과 열정이 끓어번지는 심장에 당의 부름을 새겨안고 뜻깊은 올해의 첫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속에 불같은 날과 달이 흘러 어느덧 200여일이 되였다.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올해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그날 물길건설중앙지휘부와 각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흥분으로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이 한몸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겠습니다!

어느 단위에서나 이런 신념의 맹세를 다지는 불같은 웨침이 터져나왔다.

허나 쉽게는 갈수 없는 길이였다. 황해남도물길공사는 이미 진행한 다른 물길건설에 비해볼때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방대한 공사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불가능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지난 어느날 밤 자강도려단 희천시대대가 맡은 물길굴에서는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물길굴 160여m지점에 남겨놓았던 6m의 붕락구간을 극복할것을 스스로 결의해나선 당원들이였다. 어느 순간에 흙사태가 쏟아질지 모르는 속에서 동발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땀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이 구간은 붕락이 너무 심하여 동발을 버티여놓고 남겨놓았던 자리였다.

200여일! 이 나날은 그들 모두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의지를 안고 투쟁해온 잊을수 없는 하루하루의 련속이였다.

100만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5만여m³의 물길굴확장공사를 내밀었으며 1만 5천여m³의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하여 저수지언제와 물길굴, 흙물길, 구조물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올해중에 1단계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 이것을 어찌 단순한 수자로만 여길수 있으랴.

거창하게 솟아오르는 저수지언제며 산봉우리들을 꿰지르며 열린 물길굴들과 시원하게 뻗어간 흙물길들은 이렇게 자랑하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값높은 위훈을 새겨온 결사관철의 200여일이라고.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생명을 내대야 하는 전투를 앞두고 열린 당원협의회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동무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킵시다.》

《우리 당원들이 맡아 해제낍시다.》…

이렇게 조직된 당원결사대였다. 긴장한 전투속에 마지막동발을 해체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에 흙사태가 쏟아져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자연이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결판을 내보자는 배심으로 떨쳐나 또다시 전투를 벌렸다. 밀차도 성차지 않아 흙마대를 메고 달리고 또 달리며 흙을 처리하느라면 또다시 쏟아져내리는 흙사태, 이렇게 하기를 10여번, 당원들모두가 지쳤지만 누구하나 주저앉지 않았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물길굴을 건설할 불타는 일념으로 더욱 분발해나선 결사대원들은 분과 초를 쪼개가며 전투를 벌리였다.

42시간동안 벌어진 격전에서 식사시간마저 아까와 주먹밥을 먹으며 이들은 끝끝내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함경남도려단 단천시대대에서 6월까지 맡은 대상건설을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었을 때였다. 일군들이 남은 공사량을 타산해보니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방대한 작업량이였다. 과연 우리가 할수 없는 목표를 세웠는가.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돌격대원들이 지휘부로 달려왔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콩크리트피복을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 하겠습니다.》

격한 웨침소리,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비낀 얼굴들…

전투가 시작되였다. 한사람이 하루작업과제를 두배이상 해야 하는 전투는 간단치 않았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돌격대원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원물자를 가지고온 려단일군들에게 자재를 먼저 보내달라고 호소한 돌격대원들이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려는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드팀이 없었다.

결사의 의지로 끓는 심장들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지난 시기에는 하루 한번밖에 할수 없는것으로 여기던 콩크리트피복을 두번 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콩크리트피복을 하루에 10여㎥나 내밀어 대대가 맡은 수백m의 물길굴공사를 5월까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쏟아져내리는 석수로 하여 허리를 치는 물속에서도 착암기를 놓지 않은 청년들, 손이 찢기면서도 버럭을 쳐낸 돌격대원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동지들을 구원하고 떠나간 자강도려단의 한 일군…

자연과의 치렬한 투쟁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가슴아픈 시련의 고비가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운 건설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정녕 돌격대원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200여일의 하루하루를 1분1초로 쪼개가며 위훈의 자욱을 남겼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물길공사장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이런 구호가 나붙어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바로 이 구호에 황해남도물길을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가 비껴있다.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만년대계로! 이것이 돌격대원들의 드높지 않는 신념이고 목표였다.

지난 5월 어느날 저수지언제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의 한 일군은 점심시간에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였다. 조용한 언제우에서 두명의 청년이 10m 남짓한 장석구간을 허물고있었다. 왜 허무는가고 묻는 일군에게 돌격대원들은 대답하였다. 한달전에 자기 손으로 쌓은 구간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 돌쌓는 기술이 미숙하여 설친것이 가슴에 걸려 다시 손을 댔다고.

뭉클해진 일군의 가슴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더욱 세차게 두드렸다.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 가도 끄떡없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이 언제에 저의 량심을 묻고싶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청년의 심정만이랴. 창조물에 흠이 있으면 일생에 영원한 허물로 남는다면서 중심강토의 진흙다짐을 질적으로 진행한 평양시려단의 돌격대원들, 콩크리트혼합물에 혹시 자그마한 검불이라도 섞이지 않을가 걱정되여 타입작업에 앞서 몇번이고 검사하군 하였다는 평안남도려단 성천군대대의 돌격대원들…

자강도려단 강계시대대가 완공한 물길굴벽의 타입면에는 돌격대원들의 이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씌여져있다.

굴진이란 말조차 생소했고 언제 한번 착암기를 손에 쥐여보지 못한 돌격대원들이였다. 하루 몇cm도 전진하기 힘들어하던 그들이 물길굴을 완공한 소식은 온 공사장을 들썩이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를 더욱더 감동시킨것은 물길굴속에 묻은 돌격대원들의 깨끗한 량심이였다. 땅속으로 뻗어간 물길굴이 완공되면 누구도 다시 들어가볼 일은 없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1㎡의 콩크리트피복을 하고는 타입면에 자기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으며 걸음걸음 전진하였다.

그것은 머지않아 물길굴로 관개수가 거창하게 흘러흘러 이름석자는 비록 씻겨져도 자신들의 땀이 스민 창조물은 천년만년 끄떡없음을 조국앞에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량심의 수표였다.

평안북도려단 구성공작기계공장대대에서 한m한m 전진하던 어느날이였다. 한m의 굴진을 하고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한 돌격대원들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공참모의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실금이 나타났기때문이였다.

굴천정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시공참모는 둘러선 돌격대원들에게 말하였다.

《허용한계이니 합격으로 합시다.》

돌격대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벼락같은 웨침이 굴안을 드렁드렁 울리였다.

《안되오. 무조건 까고 다시 해야 하오.》

대대장이였다. 바빠난 시공참모가 서둘러 변명하였다.

《지금상태도 별다른 징조가 없고 또 이제…》

《아닙니다. 후대들앞에 떳떳해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대대장이 먼저 함마자루를 틀어쥐고 나섰다. 《쿵, 쿵—》 돌격대원들도 저마다 함마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굴천정을 까고 다시 시공하는것은 야외건물을 보수하는것과는 대비도 안되게 품을 들여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스스로 택한것이였다. 그 누가 볼수도 없고 잘 알리지도 않는 실금을 없애기 위한 그 함마질소리에는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의지가 메아리치고있었다.

자기들의 량심이 비낀 창조물을 당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한다는 드높은 자각이 돌격대원들을 참된 인간으로 키워냈다. 모두가 이렇게 손에 장알이 배기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줄 아는 애국자로 자라났다.

속일수 없는것이 창조물이다.

어제는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물길이, 오늘은 황해남도물길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려는 돌격대원들의 순결한 량심과 완벽한 창조본때를 비쳐주는 거울로 되고있다.

한㎡의 장석공사를 하여도, 한㎥의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하여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런 드팀없는 신념과 량심을 지녔기에 물길건설자들은 공사장마다에서 불타는 애국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던것이다.

오늘도 심장으로 책임지자, 량심으로 보증하자는 신념의 웨침이 온 공사장을 진감하고있다.

조국이여 우리를 믿으라!

아직 이들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하지만 하루빨리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하나의 지향, 하나의 숨결로 뜨겁게 고동치는 물길건설자들의 심장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고있다.

지난 3월 어느날 평안북도려단이 맡은 공사장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려단이 맡은 신광굴탐구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진행하여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던것이다. 보통상식으로는 한달 남짓한 기간이 걸려야 할 어려운 과제앞에서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때 려단정치일군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다.

《조국이 지켜보고있습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의 호소에 일군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일군들이 이런 각오로 일떠서자 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고조되였다.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건은 불리해졌다. 거기에 비까지 쏟아져내려 전투장은 순식간에 감탕판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물속에서 돌격대원들이 착암기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 다른쪽에서는 질통과 마대를 메고 달리는 돌격대원들로 하여 작업장은 싸우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한번 더, 한번 더—》 라고 소리치며 함마를 휘두르는 돌격대원들, 화선선동을 정황에 맞게 진행하면서 질통을 지고 달리는 정치일군들,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온 전투장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기술지도를 앞세우는 기술일군들…

《조국이 우리 물길건설자들을 지켜보고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현장방송기재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목소리가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한주일, 길지 않은 나날이였다. 하지만 황해남도물길공사의 완공날자는 절대로 드릴수 없다는 각오로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나날 이들은 3 800㎥의 암반과 1 100㎥의 토량을 처리하고 반나절동안에 40㎥의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저수지언제가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하며 올라가고있던 어느날 공사장에서는 한 일군과 운전사사이에 이런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그러다 쓰러지면 어쩔려구.》

《대대장동지, 저는 물길건설자입니다. 저 언제를 빨리 쌓을수만 있다면… 온 나라가 우리를 믿고 황해남도물길공사완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무작정 잡아끌며 휴식을 권고하는 대대장의 두손을 잡고 절절히 부탁하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어제날의 위훈도 오늘을 값있게 살 때 빛난다고 하면서 자동차조향륜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일군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몸이 불편하여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떠났던 어느 한 려단의 나이지숙한 돌격대원이 며칠만에 전투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가고 묻는 려단일군에게 그는 동지들이 그립고 일감이 눈앞에 얼른거려 견딜수 없었다고 하면서 공사장으로 향하였다. 일군들이 다시 고향으로 떠날것을 요구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후대들앞에 떳떳하게 나서고싶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여 황해남도의 곡창벌에 생명수가 흐를 때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매일 30~40명의 식사를 보장하면서 어떤 날에는 운반식사보장까지도 혼자서 맡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여다니는 처녀취사원을 위해 식당근무성원을 보충해주겠다는 일군의 말에 그러면 그만큼 완공의 날이 늦어진다고 웃으며 대답하였다는 자강도려단 희천시대대의 처녀돌격대원,

얼마나 돋보이는 사람들인가.

가정의 행복도 청춘도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런 건설자들이기에 완공의 그날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물길건설자들은 이렇게 살며 싸우고있다. 오직 하나 물길공사를 완공하기 전에는 고향땅을 밟지 않으리라는 심장의 맹세가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전투장마다에는 언제나 신념의 강자, 패일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락관주의자들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건설자들은 춤과 노래를 펼쳐놓고 돌격전의 짬막한 쉴참에도 버럭더미를 깔고앉아 오락회를 한다. 승격내기로 랑만적인 생활을 창조하는 물길건설전투장에서의 배구경기, 롱구경기, 독주경연, 독창경연, 예술소품경연, 문답식학습경연, 료리경연은 또 얼마나 이채를 띠는가.

남을 쳐다보며 남의 힘을 믿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활기에 넘쳐있지 못할것이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좋다. 그 어느 대대병실을 찾아가보아도 좋다.

평안북도려단을 비롯하여 힘들게 일구고 가꾼 부업밭에서 나는 갖가지 부식물이 돌격대생활에 보탬이 되고 품들여 꾸려놓은 축산기지들에는 돼지, 염소, 오리, 닭, 게사니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니 노래 절로, 춤 절로 나온다.

승리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전투원들이기에 이렇듯 노래도 있고 웃음도 있는 랑만넘친 생활을 펼칠수 있는것이다.

1단계공사완공의 날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황해남도의 물문제를 두고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이 실현되는 날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게 될 그날이 소리치며 마주오고있다.

서해곡창 황남땅에 《조선로동당 만세!》의 웨침이 울려퍼지며 생명수 철철 흘러넘쳐 수만정보의 벌에 황금이삭이 물결칠 기쁨의 그날이.

글 본사기자 김원석
본사기자 박철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황해남도물길 저수지언제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정신력으로

격식없는 정치사업

영예의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올해 기상조건에 맞는 강냉이가을걷이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강냉이는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여야 소출과 품질을 높일수 있다.

적기보다 빨리 가을하면 낟알의 마른물질축적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천알무게가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진다.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가을하여도 천알무게가 줄어드는것은 물론 강냉이대가 넘어지고 이삭목이 꺾이며 들짐승의 피해를 받는 등 낟알손실이 많아진다.

가을걷이적기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는것은 올해 기상조건으로 보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올해 원그루강냉이의 개꼬리와 이삭수염이 나온 시기는 지역과 가물피해를 받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하지만 대체로 서해안과 북부내륙지대에서는 지난해정도이고 동해안에서는 지난해보다 평균 5일정도 빨라졌다.

기상수문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적지방에서 평년에 비하여 생육적산온도가 높아졌으나 심한 가물현상은 강냉이개꼬리나오기와 수정에 지장을 주었다. 그리고 전반적지방에서 8월 중순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강냉이여물기와 천알무게를 늘이는데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고있다. 그러므로 이런 기상조건에 맞게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여야 땀흘려 가꾼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수 있다.

강냉이가을걷이적기판정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우선 개꼬리가 나온 후 여물때까지의 기간을 타산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강냉이는 수정후 50~55일(올강냉이는 45~50일) 되면 완전히 여물게 된다. 수정후 60~65일까지도 천알무게가 늘어나는 늦품종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품종적특성을 고려하여 가을걷이적기를 정하여야 한다.

강냉이는 여무는 시기 하루동안 줄어드는 물기함량은 보통 0.7%로서 거의 일정하다. 그러므로 수정후기일과 물기함량 감소률을 잘 타산하여 낟알의 물기가 25~30%정도로 낮아지고 윤기나면서 굳어지는 시기를 가을걷이적기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강냉이알밑부분의 색변화를 보고 정할수 있다. 강냉이는 다 여물면 알밑부분이 거무스레한 색을 띠게 된다. 강냉이 한 이삭에서 90%정도의 알밑부분이 검은색을 띠는 시기가 가을걷이적기이다. 이때 강냉이알의 물기함량은 25%정도 되고 마른물질의 절대량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오사리가 마른 후 이삭끝부위의 알을 손톱으로 눌러서 자리가 나지 않으면 이삭이 다 여문것으로 보고 이때를 가을걷이적기로 한다.

강냉이포기의 겉모양변화를 보고 판정할수 있다. 강냉이는 자라는 마감시기에 잎과 줄기의 엽록소가 분해되여 색갈이 누렇게 된다. 강냉이알은 마르면서 굳어지며 윤기가 도는 시기를 적기로 정하여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해당 지대의 기상기후조건과 품종별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가을걷이적기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일정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농업성 책임부원 류명선

가을걷이준비를 실속있게

토산군 백화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가을걷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있다. 결과 작업반들에서는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익는족족 거두어들일수 있게 운반수단과 소농기구들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탈곡기들의 수리정비에도 힘을 넣고있다.

가을걷이준비에서는 제1, 5, 6작업반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작업반들에서는 초급일군들이 앞장에서 대중을 가을걷이준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장에서는 부림소영양상태를 좋게 하여 가을걷이에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광복

헌신적복무정신에 진취적인 사색이 따라설 때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남전기설비수리공장 초급당비서 리순철동무의 사업에서

당일군의 사색은 단위의 후방사업을 추켜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남전기설비수리공장 초급당비서 리순철동무의 사업은 그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생은 자기가 하고 행복과 영광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는것이 당일군의 고상한 풍모이다.》

리순철동무가 이곳 초급당비서로 임명되여온것은 10년전 5월이였다.

구내에 무질서하게 들어앉은 낡은 건물들과 창고…

공장을 돌아보는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적지 않은 일군들이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에 진취적인 사색이 꼭 따라서야 한다!)

그는 일군들에게 요구성을 높이면서도 자기자신이 먼저 정열적인 사색가가 되여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어느날 그가 공장가까이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부업밭을 일굴 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아연해하였다. 얼마나 품이 많이 들겠는가를 짐작하고있는 그들이였다. 그래서 눈에는 들어하면서도 선뜻 손댈 엄두를 못내고있었던것이다.

리순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말하였다.

《좀 타산해보았는데 땅에 묻혀있는 콩크리트와 철근을 전부 파내고 페인 곳은 흙을 날라다 메웁시다. 그러면 많은 땅을 얻어낼수 있습니다. 파낸 콩크리트는 공장을 꾸리는데 효과있게 리용합시다. 말하자면 두가지 리득을 보자는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구미를 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부업밭개간전투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동원되였다. 낮에는 생산을 하고 밤에는 곳곳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콩크리트와 철근을 파내고 페인 곳을 흙으로 메웠다. 그리고 많은 량의 거름을 날라다 폈다.

석달후에는 흐뭇한 면적의 부업밭이 생겨나고 다음해에는 씨불임을 하게 되였다.

마침내 부업밭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앗고 콩나물도 키워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게 되였다.

후방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데서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면서 최대한의 실리가 보장되도록 하는것은 리순철동무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던 때였다.

공장의 실정에서 남새온실을 건설할 신통한 부지가 나지지 않았다.

이때 초급당비서는 이미 있는 건물의 벽면을 리용하여 200여㎡의 남새온실을 한동 더 건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부지를 따로 잡지 않고도 건물의 벽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온실을 건설할수 있게 하고 벽의 안쪽이 작업장인것으로 하여 품을 들이지 않고도 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기발한 착상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남새온실건설은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올해에만도 공장에서는 여기서 생산한 오이, 배추, 쑥갓을 비롯한 신선한 남새들을 종업원들에게 공급하였다.

리순철동무는 후방기지들이 최대로 은이 나게 하기 위한데도 깊은 사색을 기울이였다.

저열탄을 가지고 뗄감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착화탄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하였다. 많은 로력을 들여 힘들게 생산하였지만 종업원들에게 차례지는 몫이 적었다.

리순철동무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해나갔다. 앞선 단위들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보내여 경험을 배워오게도 하고 그들속에 들어가 착상도 틔워주면서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저열탄을 가지고 착화탄을 생산하자는 발기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흐름식생산공정을 꾸려 로동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는 종업원들의 착상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따라세웠다. 착화탄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공장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한쪽에서는 설비를 제작하고 또 한쪽에서는 건물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꾸려진 착화탄생산기지에서 시간당 1 200개의 착화탄이 생산되여 종업원세대들에 착화탄을 널리 공급하게 되였다.

저열탄을 가지고 착화탄을 생산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종업원들속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공장에는 수산작업반에 고기배 두척과 운반선 한척이 있었다. 운반선이 잡은 물고기들을 부지런히 날라오느라고 하였지만 성능이 부족하여 제때에 실어오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런데도 일부 일군들은 물고기를 공급해주고있는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있었다.

리순철동무는 이런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면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겠는가 하는데로 사색을 이어갔다. 공무작업반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간 그는 속도가 빠른 운반선을 자체의 힘으로 건조하자고 호소하였다. 자동차를 타고 린접군에도 다녀오면서 부족되는 철판을 해결해왔다. 하여 운반선을 새로 건조하여 올해 석달동안에만도 종업원들에게 많은 량의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였다.

공장에서는 7년전부터 종업원들에게 콩우유를 하루도 번지지 않고 공급해주고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생일상도 차려주고있다.

그는 공장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대중을 발동하여 수십종에 1 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구내에 싱그러운 풀냄새, 과일향기가 차넘치게 하였다.

종업원들을 위하여 기울인 그의 피타는 사색의 흔적은 멋들어지게 개건된 문화회관에도,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식당, 종합축사와 벽돌생산기지, 3정보의 양어장 등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리순철동무처럼 대중의 참된 복무자, 사색형의 일군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혁명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갈 드높은 신심과 열의

이런 교육을 통하여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들이 자라난다

김 책 공 업 종 합 대 학 에 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앞둔 지금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비상한 각오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이 대학의 교육사업에서는 본받을만 한 귀중한 경험들이 많이 창조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최첨단돌파전에서 언제나 앞장에 설수 있는것은 대학의 교수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은 대학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교육내용을 현대과학기술성과로 끊임없이 보충하여야 학생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에 맞는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대학기간에 습득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세계적인 경쟁에 도전할수있으며 앞서나갈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나 중시하였다.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는데서 대학일군들이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간것은 대학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여기에서도 외국어실력과 콤퓨터실력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그것은 최신과학기술문헌들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습득하는데서 외국어와 콤퓨터실력이 관건적인 고리이기때문이였다.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외국어실력과 콤퓨터실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마련해준 교원재교육체계가 실지 은이나도록 조직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었다. 또한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교원들을 위한 집중적인 강습도 조직해주어 그들속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원자질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한 중요한 비결이였다.

대학에서는 또한 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서 과학연구활동을 벌리면서 이룩한 성과들을 교수사업에 제때에 구현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교육내용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해마다 교육내용을 현대화하기 위해 교수안들을 부단히 갱신하고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내용들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추세와 들끓는 현실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학생들을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수재교육사업도 매우 중시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재양성기지들에서 선발된 재능있는 학생들이 수많이 입학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학부마다 수재학급들을 내오고 거기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적인 공학수재반에 망라시켜 앞으로 첨단과학분야를 개척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키는데 품을 넣고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적으로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수재반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게 하고있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실천속에서 높은 실적을 내는 실력있는 인재들로 자라나 대학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대학에서 능력있는 교육자,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고있는데는 실천실기교육에 언제나 힘을 넣어온데 있다.

대학의 일군들은 실천실기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년간 대학에서 수십개의 실험실습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학생들의 실천교육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는것은 또 하나의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훌륭하게 개건된 실험실들에서 학생들은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과학연구사업도 진행하면서 실천능력을 높여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올해에도 실험실습기지들과 종합실습공장을 현대화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물론 이 대학졸업생들이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최첨단돌파전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수행하는 쟁쟁한 실력가, 인재들로 떠받들리우고있는데는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한 우수한 교육을 받은데 있다.

대학이 거두고있는 훌륭한 교육성과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해온 이곳 교육자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교육과학연구성과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두마차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공 로 혁
사진 본사기자 림 학 락

비약의 열풍으로 들끓는 교정

평 양 건 축 종 합 대 학 에 서

우리 나라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인 평양건축종합대학에 비약의 열풍이 일고있다.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추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가는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건축가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건축창조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기초하여 건축창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의 건축을 보다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활짝 꽃피워야 한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은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서게 되는 중요대상들에 대한 설계에 과감히 뛰여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만도 이 대학에서 창작완성한 150여건의 건축형성안을 보아주시고 그대로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대학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모두가 창조적지혜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과정에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일군들은 모든 교원들이 매 시기 건설부문에 제시되는 당정책을 제때에 교수에 구현하도록 하고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해주신 수백점의 건축형성안들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속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박사원생들과 학생들도 창조로 들끓는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축설계와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의 설계실천능력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올해에만도 많은 과목들을 새로 개척하고 건설부문에서 최첨단설계기술인 5차원설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여러 대상건설설계에 도입하였으며 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설계학과목들에 구현한것은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첨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좌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건축대학 건축음향 및 조명학강좌, 도시경영대학 건물관리강좌, 국토환경보호대학 환경공학강좌, 건축공학부 건설시공강좌들이 사회주의경쟁에서 앞장에 서고있다.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를 자기들이 그려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안고 학생들속에서도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비롯한 대학사업전반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두고 기적이 창조되고있다고 대학의 일군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비결을 두고 부총장 홍성룡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 전초기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였습니다.》

정녕 대학의 교육자, 학생들에게 야심만만한 포부와 리상을 심어주시고 비약의 억센 나래를 펼치도록 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첨단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시고 전공분야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히도록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에 대한 참관사업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건축부문의 최신자료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가슴에 뜨겁게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오늘 평양건축종합대학은 건축부문의 학술과 종합적인 정보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창조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는 관록있는 건축창조집단으로, 건축인재양성기지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첨단제품개발을 통해 얻은 실리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푸른 잔디 펼쳐진 운동장,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

대학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끈것은 실험실습설비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과학부문의 전문가들을 훌륭히 키워내자면 대학의 실험설비가 잘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CNC화된 설비들에 들어있는 한소편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높은 준위의 매몰형처리기와 태양빛전지판이 해를 따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조종함으로써 가장 높은 출력을 얻을수 있는 태양빛자동추종조종실험장치 등은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되여 이런 첨단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을 갖추어놓을수 있었는가.

어느 한 교사에 가보면 대학적으로 높은 실력을 지닌 교원, 연구사들이 첨단제품개발실이라는 크지 않은 방에서 일하고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하다면 강지호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왜서 뛰여난 인재들을 첨단제품개발사업에 돌렸는가.

대학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첨단제품개발사업을 보기로 하자.

겉모양은 자그마한 트랙크형식, 안에는 각종 계기판과 입출구요소들…

이것은 새로 개발한 공정조종종합실험체계이다. 다시말하면 학생들이 첨단설비들에 대한 리해를 보다 쉽게 가지고 자체로 제작한 조종프로그람들의 정확성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제작한 설비이다.

이밖에도 첨단제품개발실에는 학생들이 만든 장치의 동작효과성을 관측할수 있는 휴대용수자식다통로신호분석기를 비롯한 현대적설비들이 꽉 차있다.

볼수록 대학에서 진행하는 첨단제품개발사업이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개발하는데로 지향되고있음을 명백히 알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의 질제고에 어떤 도움을 주고있는가.

현시대는 순간이라도 주춤거리면 벌써 아득히 뒤떨어지고마는 지식경제시대이다. 때문에 리론을 현실에 접근시켜주는 실험실습교육내용을 부단히 갱신하는것은 오늘 고등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정보과학기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 대학의 특성을 놓고볼 때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 이런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개발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도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물론 대학교원, 연구사라면 누구나 계속되는 강의와 과학연구활동으로 하여 늘 바쁜 속에서도 실험실습설비개발사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시할것이 있다. 시간이다. 시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혼자서 새것을 창조하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때문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대학에서는 채윤하, 최남호, 김성철, 김명국동무를 비롯한 우수한 인재들로 개발력량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교육사업전반에로 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였다.

또한 누구나 알다싶이 첨단제품을 개발하자면 많은 첨단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하는 순탄치 않은 개발과정에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경험들도 수많이 얻게 된다.

이렇게 첨단제품들을 개발하면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높은 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을 많은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면서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펑먹고 알먹고 둥치럴어 불때기가 아니겠는가.

첨단제품개발실이 앞장서니 프로그람설계강좌와 조종강좌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강좌들에서도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 대학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어디에 중심고리를 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틀어쥐여야 학생들을 미래의 최첨단돌파자들로 키워나갈수 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한 경 철

◎ 한 생 을 교 단 에 바 쳐 ◎

교수 박사인 함흥화학공업대학 교원 박달수동무는 지난 50여년동안 나라의 화학공업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교원혁명가이다.

그는 깊은 탐구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3건의 중요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수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7명의 박사를 비롯한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이와 함께 수십건의 과학기술성과등록증, 발명권 등을 받았으며 교수교양사업을 잘하여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새교수방법등록증을 받았다.

사리원지질대학 교수 박사 김문일동무는 수십년간 나라의 지질학발전을 위한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오고있다.

이 나날 그는 20여건의 교재를 집필하고 70여건의 론문과 소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10월8일모범교수자인 김문일동무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앞날의 지질학발전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일흔고개를 넘은 김문일동무이지만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오늘도 청춘의 열정에 넘쳐 맡은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평성석탄공업대학 학부장 교수 박사 최종수동무는 실천적사업성과로 당을 받드는 참된 교육자이다.

그는 지난 27년간 새 과목들을 개척하고 70여건의 도서, 교과서, 참고서, 소론문을 집필하였다.

10월8일모범교수자인 그는 석탄공업과 관련한 다매체교육과 외국어강의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교수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그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평안남도의 여러 탄광들에 도입일반화하여 막대한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최종수동무는 여러 단위들에 나가 연구집단과 함께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 강좌장 리경주동무는 지난 28년동안 대학에서 교원, 강좌장으로 일하고있다.

몇해전부터 강좌장사업을 맡게 된 그는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강좌교원들과 함께 콤퓨터망, 자동조종리론을 비롯한 7개의 학과목을 새로 개척하고 실험실을 현대적으로 꾸려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그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10여건의 과학기술성과등록증 등을 받았다.

특파기자

박달수동무

김문일동무

최종수동무

리경주동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평양국제 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8월 31일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이며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끼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선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손님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일본 후꾸오까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기따하라 마모루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후꾸오까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뜻깊은 곳이라고 하면서 일본인민들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체사상탑과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참관하였다.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게

각지 정양소, 휴양소들에서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각지의 정휴양소들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려져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로동성과 각지의 정휴양소일군들은 건물들의 개건보수에 힘을 넣어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것과 함께 정휴양조직과 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온포휴양소에서는 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보수하는 한편 3동의 온실건설도 동시에 내밀어 휴양생들의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토대도 갖추어놓았다.

묘향산휴양소, 석암휴양소, 고원군농민휴양소를 비롯한 여러 휴양소들에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된 휴양각들과 문화오락관, 식당 등을 짧은 기간에 새롭게 꾸렸다.

락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삼호휴양소개건보수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방조를 줌으로써 휴양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승강기공장에서도 정양소를 훌륭히 꾸려놓고 그 운영과 조직을 잘하여 종업원들이 정양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있다.

정휴양조직과 관리운영을 잘하고있는 원유공업성, 룩해운성, 간석지건설지도국, 평안북도의 정휴양소들과 보산제철소, 개천철도국의 정양소들에서는 올해 상반년정휴양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정평군농민휴양소, 송림항의 정양소를 비롯한 여러 정휴양소들에서는 정휴양생들의 생일상도 차려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더 잘 가닿도록 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각지의 정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근로자들이 정휴양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성의를 다하고있다.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위훈 창조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의 청년전위들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청년들이 기술개건과 생산활성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혁신청년돌격대원들은 피타는 탐구로 콤퓨터조종에 의한 가열로온도조종체계, 각강련속조피공정조종체계 등 수십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청년들도 새로운 크랑크축생산방법을 비롯한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였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벌려온 사리원방직공장 청년들속에서 수십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등 도의 공장, 기업소청년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 생산장성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이 드넓은 협동벌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밑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청년들이 모든 영농작업들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한편 많은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건설하여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고있다.

황주, 은파, 신계, 곡산, 상원군의 청년들도 새 품종들과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고있다.

청춘들의 활무대인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도 비약의 열풍이 일어나고있다.

혜성강발전소건설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4호발전소의 1호발전기조립과 수문, 조종교보설치 등 전반적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또한 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언제성토공사과제를 80%이상 해제낀것을 비롯하여 발전기실콩크리트타입, 옥외변전소, 살림집건설 등 방대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청년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서흥호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가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체육관, 문화회관, 소년회관들이 새로 건설 및 개건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폐막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폐막식이 8월 31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폐막식에는 김영훈체육상,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이노끼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 김명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이 참가하였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폐막식에 앞서 진행된 제2일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단식

크랏셔 가와구찌(일본):오쿠다 게이스께(일본)승:패

왕빈(중국):다까 구노(일본)승:패

울티모 드라곤(일본):에디 프란취(프랑스)승:패

보브 쌥(미국):사와다 아쯔시(일본)승:패

스즈가와 싱이찌(일본):몬따냐 씨우바(브라질)승:패

후지다 가즈유끼(일본):제롬 르 반너(프랑스)승:패

남자복식

하시모또 다이찌, 쇼궁 오까모또(일본):에릭크 함마, 죤 앤더슨(미국)승:패

녀자복식

레이, 사또무라 메이꼬(일본):기무라 교꼬, 대쉬 지사꼬(일본)승:패

경기가 끝난 다음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여러 나라 프로레스링선수들에게 상장과 참가증서가 수여되였다.

9월중 지자기현상

9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8시-10시), 7일(10시-12시), 12일(1시-3시), 17일(7시-9시), 20일(9시-11시), 27일(1시-3시).

청진지방

4일(16시-18시), 8일(4시-6시), 12일(1시-3시), 16일(21시-23시), 18일(8시-10시), 24일(17시-19시), 28일(18시-20시).

북침불장난소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리고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았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막을 내리였다. 비록 내외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은 끝났지만 그것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막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엄중한 후과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였으며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라는 립장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피뢰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끌끌내 미국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우리에게 한사코 도전해나섰다. 내외호전광들은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제침략군과 피뢰륙해공군의 대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 그리고 피뢰행정기관들과 민간업체들까지 내몰아 북침을 가상한 불장난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적들의 이번 연습은 사상 처음으로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라 벌어진것으로 하여 위험성이 그 어느때보다 컸다.

이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북침핵선제공격을 가상한 매우 위험한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이였다. 내외호전세력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다시금 개선의 기회를 잃고 수습할수 없는 파국상태에 빠지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더한층 증대되였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현실적이며 중대한 문제이다.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긴장을 야기시키는 군사적도발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군사적도발의 전형이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할수 없고 민족적화해와 단합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북남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떠들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북침전쟁을 추구하면서 남조선피뢰들을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에로 적극 떠밀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국방성 부장판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찰하게 한것은 피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한 로골적인 지지이며 부추김이다.

문제는 남조선피뢰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는 고약하게도 《화전량면전술》이니 뭐니 하며 등을 돌려대고 핵전쟁도발을 꿈꾸는 외세와는 작당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이룩하려는 동족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우리가 북남관계가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려 한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불신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도 피뢰들은 신성한 체육경기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면서 우리의 참가에 장애를 조성하고 나중에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요란히 터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불장난을 벌리면서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대화에 대해 운운한것이다. 상대방을 겨냥한 요란한 불장난소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대화가 진행될수 있으며 설사 마주앉는다고 해도 전쟁연습이 초래하는 극도의 불신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수 있겠는가.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한사코 무력으로 대결하려고 발광하고있는 조건에서 쌍방사이의 신뢰가 조성될수 없고 대화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앞에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뒤돌아앉아 동족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핵전쟁불장난소동에 열을 올림으로써 저들이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피뢰패당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대화가 자연히 이루어질것이라는 피상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하지만 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그것이 고조시킨 전쟁발발의 위험과 불신, 대결기운까지 저절로 사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상대방을 심히 위협공갈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대화를 입에 올리는것은 핵전쟁도발소동을 반대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며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서툰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해결의 근본방도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아무리 북남대화가 열리여도 그것은 또다시 좌절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다. 올해 2월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고위급접촉이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북남관계가 계속 파국에로 치닫게 된것도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였기때문이다.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북남관계가 파국을 맞군 하는 악순환을 더이상 되풀이하여서는 안된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에서 해결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자면 남조선에서 북침을 가상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이 끝장나야 한다.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개선이 중요한가 아니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더 중요한가. 남조선당국은 이에 대해 명백히 대답해야 하며 동족대결을 끝장내기 위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하루속히 들어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심 철 영

반통일분자들의 구차스러운 변명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처사로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이다. 지금 내외에서는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가로막은 피뢰당국의 망동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에 당황해난 피뢰들은 통일부 대변인을 내세워 《유감》이니, 《외곡주장》이니 뭐니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이미 응원단이 나가지 않는다는것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피뢰당국관계자들에게 공식 통지하였었다. 그런데 피뢰들은 그에 대해서는 덮어두고있다가 이제 와서야 《구두언급》이니 뭐니 하면서 발뺌을 하고있다. 피뢰들의 언동은 우리 응원단이 나갈수 없게 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외곡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유치한 놀음이다.

피뢰들은 《유감》이니, 《외곡주장》이니 하며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그토록 달가와하지 않으며 원새끼를 꼰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에 허튼수작질인가.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는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보면서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다그쳐왔다. 우리의 응원단이 나가 경기대회를 흥성거리게 하면 남측에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없다. 남조선 각계도 6.15시대를 그리워하며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고대하였다.

하지만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였다. 다름아닌 남조선피뢰들의 방해책동때문이다. 피뢰보수패거리들은 그 무슨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하는 못된 여론을 내돌렸는가 하면 《화전량면전술》이니, 《미인계》니 하는 고약한 나발을 불어대며 비롯하게 남조선 각계의 우리 응원단환영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한 북남실무접촉마당에서 남측이 취한 태도는 우리 응원단의 파견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속심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처음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나오던 남측대표들은 《서울지령》을 받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응원단규모와 구성이 어떻다느니, 공화국기와 통일기의 크기가 어떻다느니 하며 생트집을 걸었다. 지어 우리가 언급하지조차 않은 비용문제를 우정 꺼내들고 치사스럽게 놀아대면서 실무접촉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남측의 천만부당한 처사는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응원단파견을 취소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사태의 진상은 바로 이렇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의 문을 열려는 동족의 진정을 그처럼 악의에 차서 모독하며 온갖 방해책동을 일삼은자들이 《유감》이니, 《외곡주장》이니 하고 나발질할 체면이 있는가.

죄지은자 뒤가 켕기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응원단파견취소통지를 덮어버린데 대해 《구두언급》, 《비공식》따위를 운운하며 변명해나선것은 저들의 반통일망동으로 초래된 이번 사태와 그 수습에 고의적으로 나서지 않은 죄악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격분과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두려웠기때문이다. 피뢰들이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이나 주어섬기며 궁색하게 처신하는데 대해 사람들은 입이 쓰거워 침을 뱉고있다.

우리 응원단이 경기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피뢰들의 부당한 처사때문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피뢰들은 입이 열백개라도 변명할수 없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참가할수 없게 된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으로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이번 사태로 하여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의 열기를 다시금 일으켜나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신뢰》니, 《대화》니 하며 우리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무조건적인 거부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제체육경기마저 북남대결에 악용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친 남조선당국자들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수 없다.

은 정 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시 위 투 쟁 전 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련이어 전개되고있다.

8월 25일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 시민들은 현 집권자가 《특별법》제정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각각 출발하여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시위를 벌렸다. 이어 시위자들은 경찰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롱성장을 찾아 그들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소속 종교인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기도회를 가지고 참사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 쟁 은 해 외 에 서 도

재미동포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8월 17일 미국의 뉴욕에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를 남조선의 현실은 동포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 《정부》가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민중의 요구대로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당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단식투쟁에 나선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하며 《특별법》제정을 위한 운동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재미동포들은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8월 17일부에 대참사를 초래한 피뢰당국을 규탄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동포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고로 잃는것은 최악의 악몽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는 피해자유가족들의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곡된 여론으로 대중을 우롱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유가족들이 《국회》청사앞에서 한달이 넘도록 단식투쟁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세월》호침몰은 탐욕과 부패,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 단죄하였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특별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각계가 떨쳐나서서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단 식 투 쟁 에 돌 입

남조선의 작가회의 성원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8월 26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참사직후 《세월》호침몰사고유가족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였던 현 집권자가 오늘에 와서는 그들과 만나기를 거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여야정치권의 기만행위로 하여 《〈세월〉호특별법》제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시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더우기 보상금 등을 운운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보수세력의 망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현 집권자는 참사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에게 한 약속과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투쟁에 떨쳐나선 재미동포들

《〈세월〉호특별법》은 왜 제정되지 못하는가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넉달이 지났지만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상이와 대결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지난 7월에 있은 림시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이 실패한데 이어 이번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피뢰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침몰사건은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환장해 돌아간 업주측의 비인간적처사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늦장을 부리며 똑똑한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패무능한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행으로 빚어진 특대형범죄사건이였다.

하기에 희생자유가족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가 살인마들에 대한 치솟는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데 대한 문제가 피뢰국회에 제기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의 치렬한 대립만 낳으면서 날로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하기를 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남조선 각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제정은 핵심이 빠진 유명무실한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아무리 협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자빠지고있다.

특별검사의 추천문제에서도 《새누리당》은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립장을 보이고있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피뢰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협회 회장과 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특별검사추천절차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새정치민주련합측은 추천위원회의 《국회》의원 4명중 3명을 야당의원으로 구성할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해버리고말았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특별법》제정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와 유가족이 참가하는 3자협의체구성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집권자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제의 본질은 《불신》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극력 회피하고있다. 청와대측도 《〈세월〉호특별법》은 《국회》가 처리할 문제로서 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우기고있다.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을 만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등을 돌리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이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는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목되는것은 피뢰집권세력이 집권자의 사고당일처신 내막이 드러나는것을 매우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이다. 청와대는 집권자가 사고당일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으며 과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데 의하면 《세월》호가 조난당한지 1시간만에 첫 보고가 들어왔는데 집권자는 그때로부터 7시간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나타나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고 왕청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해 여론들은 아연함을 금치 못하며 집권자가 7시간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은 바로 이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께름한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막아보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보수패당의 기만적정체를 잘 알고있는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지금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집권자의 결단을 요구하며 청와대근처에서 무기한 롱성투쟁을 전개하고있다.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간 한 유가족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남조선 각계가 적극 합세해나서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1 200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에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다.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리는 시민들은 8월 22일이후 2 200여명에 달하였다. 인터네트를 통해 단식투쟁에 참가한 시민들은 무려 2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처사에 격분한 유가족들과 각계는 대규모집회를 벌리는 등으로 강력히 항거해나서고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과 관련한 남조선정국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는 반역패당에게는 기대할것이 조금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이동식그물우리양어에서 얻은 경험

평 양 시 양 어 관 리 국 에 서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 양어관리국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에 큰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우리를 강이나 호수, 바다에 설치하고 높은 밀도로 넣은 물고기를 자연먹이나 인공먹이를 리용하여 기르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는 물고기생산량이 높은것으로 하여 그 발전전망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여러모로 좋은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잘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체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간 대동강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하여 첫 수확을 하였다. 이번에 수확한 기념어, 초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은 양어못에서 같은 기간에 기른것보다 더 컸다. 일군들은 이런 성과도 좋지만 앞으로 그물우리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더 잘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얻은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은 그물우리양어를 통해 우선 물고기들의 먹이보장을 위한 일련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았다.

일군들과 관리공들은 수질이 좋으면서 자연먹이를 많이 리용할수 있는 곳을 양어수역으로 정하고 대동강의 물흐름방향을 따라 그물우리를 길게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관찰해본데 의하면 자연먹이가 그물우리안에 골고루 흘러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실례로 바람이 물흐름과 반대방향으로 불면 물결을 타고 올라오던 미생물이 이동식그물우리 아래부분에 더 많이 흘러들군 하였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그물우리의 웃부분에 배합먹이를 보충적으로 넣어주기로 하였다.

관리공들은 알곡부산물과 큰 단백풀, 푸른이끼를 배합하여 주먹크기로 빚은 먹이덩어리들을 그물우리안에 넣어주었다. 미생물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먹이량을 그전에 비해 절반정도 작게 정하여 주었다. 이 시기에는 물고기들의 자연먹이리용률이 높기때문이였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니 먹이보장을 고르롭게 하면서도 물고기를 잘 기를수 있었다.

초식성물고기를 다른 물고기들과 섞어기르는것이 좋았다.

물속에서 자라는 풀이 그물우리안으로 많이 솟아오르면 작은 물고기들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주목을 돌린 일군들은 여러가지 물고기 100마리당 10마리의 초어를 섞어기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니 그물우리안의 풀이 말끔히 제거되여 물고기들이 잘 자랐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자연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그물우리양어를 하면 물고기병을 예방하고 롱정어와 쏘가리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고급어족도 얼마든지 기를수 있었다. 그물코에 물때가 끼지 않도록 그물을 자주 털어주며 실정에 따라 장마철을 전후하여 이미 기른 물고기를 수확하고 새끼물고기를 넣어주는것이 좋았다.

일군들과 관리공들은 이런 경험들을 얻은데 기초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심있게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끝없이 이어지는 길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지난 10여년동안 이들은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씨, 백도라지를 정성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주의학전문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지난 17년동안 금수산태양궁전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진심을 바치고있다.

이들은 올해에만도 10여종에 1 900여점의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내주었다.

황해북도 린산군 린산소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지난 몇해동안 10여차에 걸쳐 백도라지 37만뿌리와 1 500여점의 관리도구를 정성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내주었다.

올해에도 이들은 두차례에 걸쳐 많은 백도라지와 꽃씨를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더없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평안남도 신양군녀맹위원회, 창광원 수영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하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과 관리도구들, 갖가지 꽃씨와 백도라지를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목청껏 터치는 인민의 목소리가 이 나라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하기에 온 나라 천만자식들을 잘살게 해주시려 한평생 찬눈길 걷고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못 잊어 따르며 달려가는 인민들의 충정의 길은 정녕 끝이 없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청소년체육학교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신 의 주 시 에 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에서 신의주시청소년체육학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새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신의주시청소년체육학교에는 종합체육훈련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과 체육기자재상점,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청소년체육학교건설을 올해안으로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현장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시안의 청년동맹원들과 시량정사업소의 로동자들로 돌격대를 무었다. 이어 지난 3월에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세멘트와 목재, 철근을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일정계획대로 공사를 내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종전의 낡은 건물을 통채로 들어내고 짧은 기간에 건물기초공사를 끝낸데 이어 골조조립공사에 달라붙었다.

건설에 필요한 많은 량의 세멘트와 목재,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확보한 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벽체축조와 층막치기공사를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철근조립을 담당한 돌격대원들은 건설의 선행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매일 공사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9월말까지 지붕공사를 끝낼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건설정형을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우선적으로 풀어주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청소년체육학교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세계대전의 력사적교훈과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인류력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처절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로부터 75년이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발발시점으로부터 25년만에 터진 제2차 세계대전을 돌이켜보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혹성과 평화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인류력사에 1만 4,50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엄청난 인적, 물적손실을 낸 전쟁은 없었다.

4년 3개월간에 걸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근 1,000만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면 6년동안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보다 5배가 훨씬 넘는 5,646만여명이 희생되였고 수만개의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되였다. 전대미문의 살륙과 파괴를 초래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인류는 심각한 교훈을 찾고있다.

그 교훈은 국력이 약한 나라는 례외없이 제국주의침략의 희생물로 되기마련이며 전쟁은 불의에 일어나기때문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항시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는것, 제국주의침략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대전을 피할수 없다는것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먼 과거의 일로 되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혀졌다고 생각하는것은 오늘의 현실을 무시한 그릇된 견해이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고 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없다.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계속되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면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전쟁의 총포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짙어가고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새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계최초의 핵전쟁으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새로운 세계대전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하는것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론들은 새 세계대전의 불꽃이 조선반도에서 튕길것이라는데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조선반도가 대국들의 리해관계로 복잡하게 뒤엉키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장으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것이 그 리유이다. 그런것만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새 세계대전을 방지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세계에 열점지역들은 적지 않게 있어도 조선반도처럼 첨예하고 핵전쟁위험이 큰 지역은 없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질 때부터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주요전장으로 점찍었고 대전종식을 전후하여 우리 인민의 의사와 지향에는 아랑곳없이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아 민족분렬의 고통과 대결의 비극을 들씌운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백년숙적이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아시아라는 《큰 고기덩이》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아시아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묘사하면서 북침을 계기로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획책하여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 나라와 만주, 씨비리를 노리고 극동침략계획인 《A, B, C계획》을 세워놓은 다음 1950년에 첫 단계인 《A》계획실행을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한 전범자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에 의해 혼쭐이 빠지게 얻어맞은 미국이 두손을 들고 항복한것으로 하여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계획은 성사될수 없었다.

미국은 1950년대 조선전쟁때에는 물론 그이후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제2의 조선전쟁도발시 핵폭탄을 즉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십차례나 검토추진하여왔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자기 주권과 인민을 지켜내고 평화와 무궁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핵무력에 의거한 강력한 군사적힘을 가지는 길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다싶이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규모의 랭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사이에는 한번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우리의 핵보유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견해를 내놓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선택이 천만번 정당한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포기요구는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조선반도를 세계최초로 도발할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삼겠다는 소리나 같다.

우리가 핵을 틀어쥠으로써 핵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표류하는 난파선의 운명에 처하였다. 오바마정권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실패하였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굽어들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전략적실책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자주권수호와 평화보장을 위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강점정책을 완전히 끝장내는데 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지배해온 력사는 근 70년이다. 앞으로도 계속 피뢰군의 통수권을 틀어쥐고 남조선을 북침과 아시아침략을 단행하기 위한 핵전초기지로 리용하겠다는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의 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 동족상쟁을 부추겨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악랄한 술책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안전을 수호하자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감행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년례적인 방어》와 《평화수호》를 떠들면서 계절별로 련속 벌려놓는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들이다.

핵선제타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억제전략》을 정식 적용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만 놓고보아도 여기에는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들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피뢰룩해공군의 련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되였고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이 수많이 투입되였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다양한 명목밑에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조선반도의 남쪽에서처럼 그토록 회수가 잦고 규모가 방대하며 전략핵타격수단들이 많이 동원되고 지역점령을 가상한 연습이 벌어지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우리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소동을 종식시키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길일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길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유령같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은 분렬이 아니라 대단결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고있다. 북과 남은 여러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북남공동선언들도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대강과 리정표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외세의 도움이나 간섭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능히 자주통일도 평화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지속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틀고앉아있는 한 그리고 침략적인 핵전쟁연습들이 주기적으로 강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제2의 조선전쟁은 불가피한것으로 된다.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되도록 하자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를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 책임지고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지구상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크고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않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 있는데도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해주는데 리용되고있다는것이 공정한 여론의 평가이다.

최근에만 놓고보아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진행한 전술로케트탄발사를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 《규탄》하는 발표놀음을 벌려놓은 반면에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사실상 묵살해버리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

미국이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은 시비거리로 될수 없는 정상적인 일로 되고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조치들을 취하는것은 문제로 된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판결》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는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어긋나게 미국에 놀아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날로 격화되고 시시각각으로 전쟁위험계선에 들어서고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있다.

만일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에 의해 핵전쟁의 불길이 열번도 더 일어났을것이며 인류는 무서운 참화를 입게 되였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론 평 원

간또땅을 피로 물들인 일제의 조선인살륙만행

1923년 9월 1일, 이날 오전 일본의 간또일대에서는 일본력사상 보기 드문 대지진이 일어났다.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점심식사준비로 집집마다에서 풍로에 불을 피우고있을 때 돌발적으로 일어난것으로 하여 그 후과는 매우 파국적이였다. 간또지방의 10여개 도시들과 마을들이 불바다로 변하였다. 120여만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

하지만 력사에 수록된 간또대진재는 결코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였다. 이것을 재일조선인탄압의 좋은 기회로 삼은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파괴적인 지진의 후과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시급한 구제대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빠맞은 일본당국은 극도에 이른 민심의 불만의 창끝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눅잦히는 한편 이를 대대적인 조선인탄압과 학살의 기회로 삼을 무서운 음모를 꾸미였다.

9월 1일 오후 정보부에 민심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이에 따라 정보부에서는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류언비어를 날조해냈다. 일본당국의 모략가들이 달라붙어 조선인대학살음모를 고안해냈다. 9월 2일 조선인탄압지령이 각 지방장관들에게 하달되였다. 뒤이어 교활한 일제는 조선인살륙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일본인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조선인폭동설》을 날조해내고 조선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일본왕의 《칙령》 401호를 공포하였다. 일본법에 의하면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이 발생할 경우에만 선포할수 있었고 사변인 경우에도 반드시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이 인정되여야 내리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자연재해구제와는 판계없이 일제는 무고한 재일조선인을 터무니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할데 대한 계엄령을 공포하였던것이다.

일본반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가장 악질적인 장교들로 간또계엄사령부가 조직되였다. 수만명에 달하는 군대와 경찰무력이 간또일대에 집결되는 등 이 지역의 정세는 어마어마한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다. 경찰서, 파출소들에는 《불량조선인들이 봉기》하였다는 날조설과 함께 《반항하면 죽여도 일없다.》는 게시문이 나붙었다. 경찰관들은 메가폰을 들고 도시를 순회하며 《조선인들의 폭행에 대하여서는 죽여도 일없다.》고 일본인들에게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불량배들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군대와 경찰들과 협동하였다. 력사에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인 간또대진재와 함께 인공적인 재난으로 수록된 일제의 극악무도한 조선인집단살륙범죄의 막은 이렇게 열렸다.

원래 사무라이기질을 타고난데다가 민족배타주의가 몸에 푹 배인 일제살인귀들은 장총, 일본도, 단도, 참대창, 곤봉, 쇠갈구리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무참히 탄압학살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물에 던져 죽였으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의 목을 자르거나 조선사람들의 팔다리를 톱으로 켜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살인귀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인간백정들은 《오래간만에 법이 허락하는 사람잡이이니 흥이 났다. 전주대에 쇠줄로 잡아맨 후 때리고 차고 쇠불이로 머리에 구멍을 뚫고 참대창으로 찔렀다.》고 자랑하면서 쾌락에 들떠다니였다. 피에 주린 악당들은 길목마다 검문소를 만들어놓고는 우리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면서 조선사람을 골라내여 그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이였다. 간또지방에서 일제의 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한 일본인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 애젊은 조선녀성의 시체도 있었다. 그 녀성의 배는 갈라져있었고 6~7개월쯤 되여보이는 태아가 창자속에 딩굴고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도 놀라 옆으로 뛰면서 물러섰다. 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짓을 했단말인가. …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수치감을 이때처럼 절감하기는 처음이였다.》

간또지방은 말그대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 일제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2만 3 000여명을 헤아린다.

그뿐이 아니다. 사람잡이를 하나의 도락으로 여긴 일제살인귀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잔악무도한 학살을 하고서도 모자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을 포로수용소에 가두어놓고 소나 말보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일제야수들은 재일동포들을 포로로 취급하면서 지진피해지역에 내몰아 강제로동을 시켰다. 이 과정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굶어죽고 로동재해로 쓰러졌다. 실로 재일조선인들에게 들씌워진 간또대지진참변은 그 목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본반동정부의 주도세밀한 계획밑에 조작된 야만적인 조선인집단학살사건,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대살륙만행으로서 일본반동지배층의 민족배타주의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였다.

간또대진재가 있은 때로부터 9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반동들은 이 사건의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 오죽하면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시민들이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까지 결성하고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요구해나서겠는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살인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사를 외곡할수도 묻어버릴수도 없다. 일본당국은 간또땅에 한을 품고 숨진 수천수만의 령혼들의 원한에 찬 절규를 새겨듣고 하루빨리 그 죄악을 청산하여야 한다.

강 철 수

반제자주는 뿔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

1961년 9월 1일은 뿔럭불가담운동력사에 뜻깊은 날로 기록되여있다. 바로 이날 제1차 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던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와르샤와조약기구사이의 군사적대결이 치렬하던 당시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된 이 회의는 뿔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진군의 시작을 알리는 사변적인 회합이였다.

뿔럭불가담운동이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조직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때로부터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에 자주의 리념밑에 그 어떤 군사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기치를 높이 든 뿔럭불가담운동은 막을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25개의 성원국으로 첫걸음을 뗀 뿔럭불가담운동이 오늘은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망라하는 반제자주력량으로 성장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뿔럭불가담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은 매우 크다.

뿔럭불가담운동의 출현으로 세계력량판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주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뿔럭불가담운동은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와 몰락에로 떠밀고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뿔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 위업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는 뿔럭불가담운동이 세계를 군사뿔럭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뿔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반제자주는 뿔럭불가담운동이 내세우고있는 근본리념이다. 오직 반제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뿔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운동이 내세운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성에 겁을 먹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정치적불안정과 사회적혼란이 일어나고 참혹한 전란이 뒤따르게 되며 분렬과 불안정만 증대될뿐이라는것이 최근의 비극적사태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서방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반테로》와 《인도주의》, 《평화보장》 등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자주권침해와 내정간섭, 국가전복행위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압박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뿔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

뿔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사명에 따라 운동의 단결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레쎄프 타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대통령으로 취임

뛰르끼예에서 8월 28일 레쎄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식에서 한 연설에서 헌법과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수호할것을 다짐하였다.

고등교육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최근 대학건설착공식에서 연설하면서 고등교육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고 정부가 제시한 전망계획을 실현하는데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힘을 넣을것이며 인재육성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산사태피해

커가는 우려, 강화되는 전파방지노력

오늘의 세계

에볼라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가고있다.

지난 8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데 의하면 올해 3월 에볼라비루스발생이래 총 1 35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감염자수는 2 473명에 달한다. 현재 에볼라비루스는 서아프리카지역을 벗어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파급되고있다. 얼마전 영국의 보건당국은 시에라레온에서 돌아온 한 간호원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였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리베리아에서 돌아온 한 에스빠냐인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에볼라비루스는 일종의 출혈성열병을 일으키는 비루스로서 감염환자나 동물의 피, 체액을 통하여 전염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 전염병을 예방할수 있는 왁찐도 없고 치료방법도 똑바로 서있지 않아 사망률이 90%에 달하고있는것이다. 이로 하여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방지가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리베리아에서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지역들에서 검역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치료쎈터들을 늘이고 감염자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치료하고있다. 전국비상그루빠가 조직된 시에라레온에서는 보건부문에서 환자격리 및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기네에서는 국경지역들에 15개의 방역초소가 새로 설립되였으며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이 강화되고있다. 나이제리아에서는 이 병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는것과 함께 감염자들을 맡아보는 전문병원을 정하고 그들에 대한 치료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대륙에서 전염병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아프리카동맹위원회의 활동이 적극화되고있다.

우선 에볼라비루스피해가 심한 서아프리카지역에 의료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치료시설들을 보장해주며 감시체계와 위생선전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염병을 미리막거나 즉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질병통제 및 예방쎈터를 창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벌어지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마께도니아의 보건기관들에서는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을수 있는 에볼라비루스감염자들을 제때에 격리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한편 이 비루스의 위험성과 그 전파를 막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선전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웰남은 국내에서 감염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에 대처할수 있는 긴급구제쎈터를 설립하였다. 병원들에서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고 그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의료일군강습이 조직되고있다. 딴마에서는 비행장과 항구들에서 려행자들에 대한 엄격한 위생검역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병원들에서는 있을수 있는 비루스감염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있다.

한편 로씨야와 카나다, 우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왁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1억US$의 자금을 긴급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에볼라비루스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다.

본사기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대로씨야제재로 불거진 현 사태를 통칭하는데 그중 적중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제재몽둥이를 먼저 휘둘러댄것은 미국과 유럽동맹이다. 제재의 과녁은 로씨야의 금융과 에네르기, 군수부문이다. 이러한 제재는 랭전종식이래 가장 가혹한것이라고 한다. 력사를 돌이켜볼때 쏘련이 해체된 후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서로 다른 곡선을 그리며 순탄치 않은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변덕스러운 기류가 자주 나타난 반면에 경제분야에서는 상대적안정을 유지하여왔다. 그만큼 로씨야와 유럽동맹은 경제무역분야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쌍방사이에 빈번히 빚어지는 정치적마찰은 경제무역관계발전의 연막속에 가리워 눈에 띄게 표면화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화물은 발화제만 있으면 불꽃을 날리기마련이다. 랭전시기에 존재하였던 뿌리깊은 불신의 씨앗을 안고있는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에 끌내 대결과 충돌의 불길이 일었다.

발단은 우크라이나사태이다. 로씨야인가 아니면 유럽동맹인가 하는 선택앞에서 이전 우크라이나정부가 로씨야를 선택하자 유럽동맹과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의 우크라이나위기를 산생시켰다. 아직까지 똑똑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려객기추락사고까지 로씨야에 책임을 넘겨씌우며 전례없는 제재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서방이 그로 하여 초래될 수백억US$의 손실까지 감수하며 대로씨야제재에 뛰여들고있는것은 강국건설을 지향해나가는 로씨야를 정치경제적으로 고립, 질식시켜 일떠서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서방이 로씨야를 길들이자고 쳐든 방망이가 홍두깨가 되여 저들에게 날아들고있는것이다.

우선 로씨야가 부당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나라들로부터의 식료품수입을 금지하였다. 결과 지난 시기 미국과 유럽동맹, 카나다와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로씨야에 납입되던 고기류와 과일, 남새, 우유 등의 수출이 중단되였다. 로씨야의 반격은 항공분야에도 뻗치고있다. 수상 메드베제브는 정부가 서방나라 항공기들의 로씨야령공통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오가는 서방의 항공기들이 우회항로를 리용해야 하기때문에 타격이 이만저만한것이 아닐것이다.

로씨야의 대응조치는 시작에 불과한것이였다. 보다 심각한것은 그뒤에 있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식료품금수조치로 생겨난 로씨야시장의 빈구석을 메꾸겠다고 저마다 나선것이다.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띠나, 우루과이는 이미 그에 대한 의사표명을 한 상태이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브라질은 로씨야에 닭고기를 납입함으로써 미국이 수출하던 년간 가금수출규모를 대신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정부는 이미 국내의 90여개 회사들에 로씨야에 대한 고기수출을 허가한 상태이다. 올해 상반년기간 로씨야와 수출확대에 관한 협정을 준비해온 아르헨띠나는 년말전으로 로씨야에 2억 5 000만US$어치의 우유제품을 납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로씨야에 수출할 농산물목록작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품을 들여 마련한 서방의 반로씨야제재그물에 통구멍이 난것이다.

서방으로서는 기가 막힌노릇이 아닐수 없다. 저들이 합세하여 대규모제재를 강행하면 로씨야가 인차 청탁의 손을 내밀줄 알았는데 일이 거꾸로 되고있는것이다.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로씨야민심을 반정부에로 선도하려고 했던 서방의 제재는 강한 역풍을 몰아왔다. 로씨야주민의 절대다수가 뿌찐정부의 대응조치를 지지해나서고있다. 오히려 판로가 막혀 파잉된 제품들로 하여 서방세계에서 복닥소동이 일고있다. 가격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는 생산업자들이 정부에 항의를 들이대고 정부는 그들대로 국내농산물소비를 의무화하는 깜빠니야를 벌린다, 로씨야를 대신할 새로운 수출대방을 찾는다 하며 민심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유럽동맹이 성원국농업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상금을 지출한다고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그것은 코끼리에게 과자 하나 먹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바빠맞은 유럽나라들이 저마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마주앉아 자기들의 반로씨야제재조치에 발맞추어줄것을 요구하고있다는 정보들이 보도수단들을 통해 슬슬 흘러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가관은 서방의 그러한 뒤공작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한다는데 있다. 유럽동맹으로서는 로씨야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를 차단시킬만 한 위력한 주패장이 없다.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와 교류가 흐름으로 되고있는 현시대의 추세를 보아도 그렇고 시장확대를 지향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아도 서방의 요구는 도저히 접수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오래전부터 형성되여온 로씨야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감정, 라틴아메리카에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기운은 서방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만이 아니다.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는 대로씨야제재를 실시한 유럽동맹과 미국에 환태평양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여나섰다고 전하였다. 인디아, 웰남, 파키스탄, 뛰르끼예, 따쥐끼스딴, 끼르기즈스딴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로씨야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세계적으로 5번째로 되는 농산물수입국인 로씨야의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무역거래를 목표로 쌍무적협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사태는 바로 이렇다. 로씨야를 겨냥하여 던졌던 제재몽둥이가 부메랑이 되여 서방의 목을 조이고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서방이 날아드는 홍두깨를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부당한 반로씨야제재를 그만두는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41136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